

6월 4주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 **본문 말씀:** 열왕기하 1장 2~4절 (6월 19일 본문)
- **포인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 1. 찬양

(새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 2. 기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 3. 말씀

열왕기하 1:2~4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3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4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받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우리말성경>

2 그때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의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는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3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만나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워 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천사가 말해 준 그대로 했습니다.

≡ 본문 이해

북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왕궁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자신의 병에 대해 묻게 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하시야에게 보내 그의 불신앙을 꾸짖으시고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북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을 본받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받았어요(왕상 22:51~53).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더 의지했어요. 왕궁의 옥상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아하시야는 심부름꾼을 에그론(블레셋의 도시)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 자신이 살아 나게 될지 물었어요. 바알세불은 파리 모양을 한 신으로 '오물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우상이었어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그의 최후를 전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왕의 심부름꾼을 만나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을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고 꾸짖어요. 그리고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 주셨어요. 하지만 어리석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무능한 우상을 찾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 4. 나눔

1)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아하시야는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2~4절)

■ 저학년

하나님은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아하시야의 어떤 모습을 꾸짖으셨나요?(3절)

■ 유아·유치

하나님은 아하시야왕의 어떤 행동을 꾸짖으셨나요?(2~3절)

□ 질문 가이드

아하시야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세요. 그가 바알세불에게 듣고 싶어 했던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중상을 입어 죽을 위기 앞에서도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자 생명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아하시야가 알고 싶어 했던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은 아하시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2) 힘든 일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내가 주로 취하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학년**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 보세요.

■ **유아·유치**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 **질문 가이드**

많은 경우 학생들은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또래에게 털어놓거나, 또래가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가느냐”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한 답과 해결 방법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아하시야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맞볼 수 있어요.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과 솔직히(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 **5. 감사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저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